

챗GPT 있는데 요즘 누가 사진 프사 쓰니?



사진 원본(왼쪽)을 챗GPT에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명령해 생성한 이미지(오른쪽). 포즈와 주변 환경을 인식해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Cover Story AI로 놀자... ‘지브리 스타일 프사 바꾸기’ 열풍

여러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프사)도 지브리 스타일인가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잘 알려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재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브리 열풍으로 하루에만 100만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가 몰린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 상태”라고 토로할 정도죠. 지난달 25일 오픈AI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나 셀카, 풍경 사진 등을 올리면 지브리나 디즈니, 심슨 가족 같은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사진을 그림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진 속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등을 인식해 그 특징들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진을 올리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I가 사진을 보고 사람과 마이크, 노래를 부르는 장소 등을 전부 파악한 후 그걸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꾸어 그림입니다. 실제 사진을

‘만화 버전’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손쉽게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지브리 스타일 프사 바꾸기’ 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SNS)나 블로그용 이미지·섬네일, 포스터 디자인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브리 열풍에 힘입어 챗GPT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오픈AI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 세계 가입자가 5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처음 출시된 이후 단 2년4개월 만의 기록인 만큼 성장 속도가 엄청나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해 글쓰기나 프로그램 코딩, 이미지 생성, 음성 합성 같은 작업들을 이전보다 손쉽게 수행하고 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인터넷 쇼핑을 도와주거나 내일 점심 먹을 식당을 찾아 예약해주는 ‘AI 에이전트’, 복잡한 연구 과제를 알아서 수행하고 보고서까지 척척 만들어주는 ‘딥리서치(Deep Research)’가 등장하는 등 짧은 기간 진행된 AI 기술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앞으로 AI와 함께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지브리 스타일 프사 한 장에 담긴 첨단 기술의 힘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나요?

김혜순 기자



국가공인 **매경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세계 1등 전기차, 중국이라고요?

세계 1위 전기자동차 회사는 어디일까요? 아마 테슬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사 규모나 명성,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테슬라는 1등으로 인정할 만한 회사니까요.

하지만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는 이제 2등 기업이에요. 지난해 중국 전기차 기업인 BYD(비야디)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렸거든요. 최근 세계 시장 분위기를 봐도 BYD의 상황이 더 좋고요.



쉽게 이해하는
시사뉴스

세계 1위 올라선 BYD

BYD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29% 증가한 1069억 달러(약 153조6000억원)였어요. 테슬라가 발표한 작년 매출 977억달러(약 140조4000억원)를 10% 가까이 웃도는 수치예요. BYD가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테슬라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BYD의 고속 성장에 큰 도움을 줬어요. BYD는 생산량의 약 90%를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에도 BYD의 상승세는 계속됐어요. BYD의 1분기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8% 늘어난 100만804대로 집계됐어요.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해외 판매량은 20만6084대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11% 급증했어요.

기술력 면에서도 BYD는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최근 BYD는 단 5분 충전으로 47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해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쑥쑥 크는 중국 전기차

1위 BYD뿐 아니라 지리, 창안, 리오토 등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PHEV 포함) 판매량 중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46.8%였어요. 1년 전 40.5%보다 훨씬 비중이 커졌어요.

거대한 중국 시장 덕에 경쟁력을 갖춘 신생 업체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삼던 샤오미는 지난해 4월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했는데, 연간 목표 인도량이었던 13만대를 달성했어요. 지난달엔 월간 신기록을 세웠고, 올해 35만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대요. 정말 빠른 성장세죠.

조금씩 흔들리는 테슬라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빠르게 크는 동안, 오랫동안 전기차 분야 1위였던 테슬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공략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예요. 샤오미 등 경쟁 업체들이 첨단 기능이 포함된 전기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1분기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고객에게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BYD의 두 번째 전기차 '셀'을 소개하는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 연합뉴스

인도한 차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나 줄었어요. 총 17만2754대였는데,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어요.

중국 외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고전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에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테슬라의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머스크 CEO가 정치적 성향을 자주 드러낸 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치식 경례를 한 일까지 겹치며 유럽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대요.

'안전 문제' 고개 드는 중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고속 성장세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고, 정책적으로도 소비자가 빠르게 전기차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은 정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개발이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중국에선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도 시작됐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기회를 제공했기에 빠르게 발전한 거예요.

하지만 중국에서 지난달 29일 일어난 전기차 사고는 여론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샤오미 전기차로 주행보조 기술을 이용하던 탑승자 3명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예요. 아직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이 잠긴 채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어요.

현지에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기술에 대한 불신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해요. 정말 빠르게 크는 중국차 시장,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매일경제 디그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장대환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이세계 아이돌’ 언니들 AI였어?



2021년 데뷔한 인기 가상 6인조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의 데뷔곡 RE:WIND.

매경DB

요즘 버추얼 아이돌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도 실감하시나요?

5인조 보이그룹 ‘플레이브(PLAVE)’가 지난 2월에 낸 미니앨범 ‘칼리고 파트.1(Caligo Pt.1)’이 한터차트 기준 첫 주에만 103만장 이상 팔려서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타이틀곡 ‘대시(Dash)’도 발매 직후 멜론 톱100 차트 1위에 오르고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195위로 진입했죠. 버추얼 아이돌이 발매 첫 주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도,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오른 것도 처음이라서 큰 화제가 됐어요.

또 다른 가상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은 오는 5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다고 해요. 버추얼 아이돌이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케이팝 걸그룹 전체로 봐도 2023년 블랙핑크 이후 두 번째라니 정말 놀랍죠?

버추얼 아이돌이란?

쉽게 말해 디지털 세상 속 아이돌이에요. 컴퓨터그래픽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서 만든 2D(2차원) 혹은 3D(3차원) 아바타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를 해요.

실제로는 ‘본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지만 우리 눈에는 가상의 캐릭터로 보이는 거죠. 이 캐릭터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굳이 묻지 않고 가상 세계관을 그대로 즐기는 게 버추얼 아이돌 팬덤의 특징입니다.

버추얼 아이돌이 대세가 된 이유?

버추얼 아이돌은 사실 1990년대 후반에도 잠깐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기술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방 사라졌죠. 요즘은 AI, 3D 그래픽, 모션 캡처, 음성 합성 같은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 사람처럼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자연스러운 표정과 목

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도 가능해졌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 중에 올라오는 팬들의 반응을 AI가 바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본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기획해주는 식이죠. 아이돌이 인기를 끌려면 각 멤버만의 개성과 이야기(스토리)가 중요한데 AI가 팬들이 좋아하는 걸 파악하고 그에 맞춰 캐릭터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줍니다. 버추얼 아이돌은 지치거나 아프지 않으니까 스케줄 제약이 적어요. 콘셉트도 원하면 금방 바꿀 수 있어서 여러 스타일의 음악과 무대를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활동이 온라인 중심이니까 전 세계 팬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케이팝과 인공지능의 결합, 기대와 우려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AI 기술과 만나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요. 예전엔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면 복잡한 장비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스튜디오나 독립 크리에이터도 AI와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 있으면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앞으로는 게임,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여러 산업이 버추얼 아이돌과 협력할 가능성이 커요. 한 번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기회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물론 AI가 발전하면서 “창작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있어요. 또 저작권이나 초상권, AI 윤리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AI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해 새로운 무대와 경험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해요. 우리 앞으로 어떤 놀라운 무대를 보게 될까요? 버추얼 아이돌의 계속되는 활약, 기대되지 않나요?

김혜순 기자

5인조 보이그룹 ‘플레이브’
빌보드 글로벌200 첫 진입

가상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
내달 고척돔 단독 공연까지

시공간 초월한 실시간 소통
버추얼 스타, 지금도 진화중



버추얼 아이돌인 5인조 보이그룹 ‘플레이브(PLAVE)’. 블래스트

우리 대통령, 왜 자꾸 물러나나요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尹 대통령 파면 선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으며, 106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일반인 방청 20명을 허용했는데, 무려 9만6370명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역대 최고에 달하는 4818.5대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 계엄은 국회가 해제를 결의함에 따라 2시간38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이후 윤

▶ NIE 준비하기

1.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봅시다.
2.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을 찾아 읽어봅시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지지자들이 탄핵 찬반 집회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현재의 탄핵 선고로 혼란스러웠던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으며 60일 이내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에 '월세' 비중 최고치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가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1.4%로 집계됐는데요. 이 비율은 2021년 같은 달에는 41.7%였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10명 중 무려 8명이 '월세'에 살겠다고 말

▶ NIE 준비하기

1. 2022년 빌라왕 사태를 통해 공론화되었던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 기피 현상과 더불어 지방 부동산 침체가 2년간 월세 급등의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 농경지 13% 줄여

전해원 KAIST 교수 연구팀은 4월 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전 세계 농경지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이 오히려 전 세계 농경지를 무려 13%나 줄여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 전체 농경지 감소의 81%가 개발도상국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으로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능력 감소, 식량 생산 불균형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 탈탄소화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

▶ NIE 준비하기

1.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협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서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핵심포인트!

8: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61.4%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월세 거래 비중

13% ↓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따른
농경지 감소 비율

친구라더니... 트럼프, 한국에 관세 폭탄



세계는 지금
World News

지난 4월 2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일 (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미국은 4월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먼저 상호관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관세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 올 때 수입하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의 일종인 상호관세는 ‘호혜세’라고도 하는데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쉽게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관세 정책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관세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흑자를 보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이제 더는 안 봐줘. 너희랑 같은 높은 관세를 적용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만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 한국에 왜 이렇게 높은 관세가?

한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에 관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각종 규제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개별관세까지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것이죠. 24%인 일본과 20%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관세율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한국은 대표적인 대미 수출 흑자국인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동차, 반도체, 석유

제품, 배터리 등이 대표적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직접 거론하여 관련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내 반응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그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관세 부과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내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내 무역 적자를 해결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각 나라와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앞으로 미국의 수출도 어려워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이틀간 10%이상 급락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 시장도 함께 불안정해졌는데, 앞으로는 자국민들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3월 의회 연설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일부 인정했지만, 당분간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국제 무역 흐름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서 주도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 일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낮추는 형태인 자유무역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 드는 바람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국제 무역의 흐름도 바뀔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각국은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도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다른 형태의 흐름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현진 연구원



상호관세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춘 정책

25%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관세 비율

자동차, 쌀
관세 폭탄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

미국에 공장 짓는 한국기업 늘어나요



NIE/영문뉴스 돋보기

Korean manufacturers eye U.S. facilities amid challenges 2025.04.02.

South Korean manufacturers are increasingly turning their attention to building production bases in the United States as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expected to unveil **sweeping** tariffs as pledged. Concerns are rising that Korea may be **on the verge of** becoming a ①**rust belt**, or a declining industrial zone, as domestic factory facilities continue to age and advanced manufacturing is shifting abroad. Experts note that a combination of factors - including Trump's tariffs, Korea's militant labor unions and high labor costs, and numerous regulations such as the 52-hour workweek - is collectively accelerating the ②**hollowing out** of Korea's manufacturing sector.



게티이미지뱅크

Major manufacturing firms, which support the Korean economy through employment and exports, are already making their way to the U.S. Hyundai Motor Group held an opening ceremony last week for its new plant,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HMGMA), located in Ellabell, Georgia. GM Korea Co., which exports 900,000 vehicles annually to the U.S., is facing **speculation** about a potential withdrawal from the Korean market. POSCO Group announced last month that it would strengthen its U.S. ③**market presence** through a "fully localized strategy." Hyundai Steel Co. is also planning to build an electric arc furnace plant to supply automotive steel to HMGMA.

"Given Korea's high labor costs, government regulations, and limited subsidies, there is little ④**incentive** for companies to build export-oriented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country," said Cho Chuel,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The domestic market is already **saturated**." Cho noted that the U.S. also offers **favorable** conditions such as strong demand and tariff exemptions. "From a company's perspective, it is only natural to choose a more competitive production base," he said.

By Ahn Doo-won, Kim Dong-eun, and Yoon Yeon-hae

[© Pulse by Mae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트럼프 관세 폭탄' 발표가 예상되자 한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성 노조, 높은 인건비, 주52시간제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신공장(HMGMA) 준공식을 열었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도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높은 노동비용, 정부 규제, 제한된 보조금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 국내에 수출 중심의 생산시설을 지을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제용어

① **Rust belt**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대): '녹슨 벨트'라는 뜻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 중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을 지칭합니다. 자동차, 철강, 석탄 등의 산업이 활발했던 곳이었지만 20세기 말에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큰 침체를 겪었습니다.

② **Hollowing out** (공동화): 경제에서 산업 기반이 빠져나가 텅 비는 현상을 의미합니다('hollow'는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이 줄고 기술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③ **Market presence** (시장 입지): 기업이 어떤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인지도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④ **Incentive** (인센티브): 사람이나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보상이나 이익을 뜻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 회사에서 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급 등이 해당됩니다.

유용한 단어 및 표현

Sweeping: 전면적인 (sweeping impact → 전면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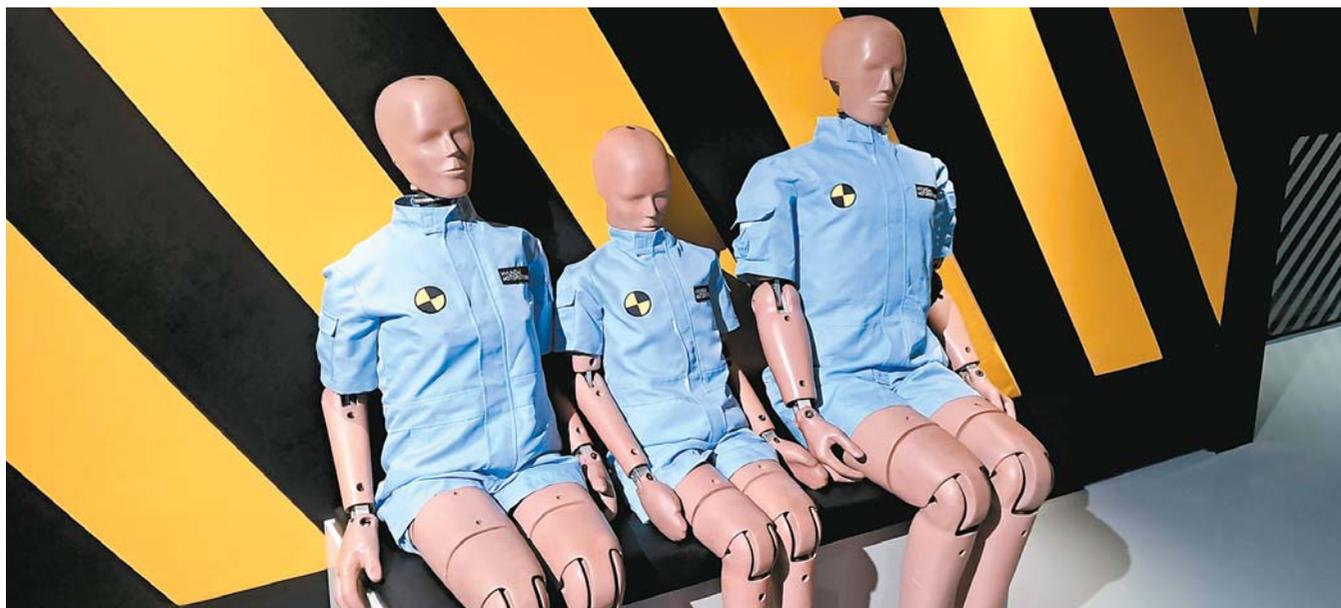
On the verge of ~: 어떤 일이 막 일어나려는 순간, ~하기 직전 상태 (She was on the verge of tears. → 그녀는 막 울기 직전이었다.)

Speculation: 추측, 짐작 (speculation about the next iPhone model → 다음 아이폰 모델에 대한 추측)

Saturated: 포화된 (Entering a saturated market requires unique strategy. → 포화 시장에 진입하려면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다.)

Favorable: 유리한, 호의적인 (favorable environment → 유리한 환경) 정주희 연구원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은 마셔도 된대요



차량 충돌 테스트에 쓰이는 '더미 인형' 안에는 '로드셀'이라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200여 개 고가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더미 인형을 활용한 실험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멋진 자동차들을 보러갈 건데요. 자동차의 제작 과정부터 미래 모빌리티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박물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입니다.

1층은 다양한 자동차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탑승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특히 평소 타보기 힘든 덤프트럭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나머지 공간은 유료 전시로 입장 팔찌를 착용해야 관람이 가능하며, 정각마다 체험 전시 및 해설이 시작됩니다.

전시는 총 4개 파트로 구성돼 있는데요. 자동차 제작 공정, 안전 기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디자인 아트쇼까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하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동차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체험 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차체에 사용되는 철광석도 만져볼 수 있었고 나머지 공정들도 직접 버튼을 눌러 실제로 진행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 과정은 AI와 기계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복잡한 배선이 들어간 곳을 조립하는 세밀하고 어려운 과정은 지금까지도 기계가 아닌 전문가, 즉 '사람'이 직접 작업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품질 키퍼'라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200여 가지의 품질 테스트를 완료해야 비로소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I와 기계의 발전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어질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뭔가 뿌듯해지며 안심되네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기술에 대한 전시가 이어졌는데요.

여러분은 한 대의 자동차에 몇 개의 에어백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좌석에 따라 4개라고 생각했는데, 한 차량에 평균 6~7개, 고급 차량에는 8~10개까지 설치돼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양과 종류도 다양한데요. '커튼' '사이드' '무릎' 에어백 등이 있으며 에어백의 재질은 낙하산의 재질과 같은 튼튼한 합성수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어백은 한번 터지면 재사용이 불가하며, 이후에 코백 등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네요!

충돌 테스트에 쓰이는 '더미 인형'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더미 인형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더미 인형 안에는 '로드셀'이라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200여 개 고가의 센서가 부착돼 있어 하나당 무려 10억 원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체험용 더미 인형을 막 만져보고 있었는데 가격을 듣고는 재빨리 손을 떼버렸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류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 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깨끗한 공기'와 '수소'가 필요한데요. 수소차가 1시간을 달리면 1ℓ의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기서 생성되는 물은 동식물이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발 중인 모빌리티에 탑승해보는 체험도 해봤는데, 운전석 없이 4개 의자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초연결시대를 표현한 아트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움직이는 '무빙추'를 활용한 조명 아트쇼로 72개의 무빙추에는 미래 모빌리티의 기본이 되는 물체 인식 센서인 '라이다(LiDAR)'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눈이 좀 부시긴 했지만, 색도 알록달록 예쁘고, 알아서 저를 피해 움직이는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물체 인식 센서가 미래 자율주행에 있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자동차 박물관 모터스튜디오를 탐방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는 4년에 걸쳐 31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오늘 모터스튜디오 탐방을 통해 배운 다양한 자동차 공정 작업 및 개발 과정이 앞으로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멋진 기술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입장 전용 팔찌와 1층 전경.



탐방정보 CHECK

- 1. 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 2.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8시
(매주 월요일 및 신정 휴관)
- 3. 이용료**
청소년 7000원
성인 1만원
1층 전시 무료

나는 식빵, 너는 머핀 ... 그래야 더 많이 만들죠



최병일 교수님의
길 위의 경제학



챗GPT가 생성한 '제과제빵 분업' 관련 이미지.

친구인 민수와 지민이는 지난겨울 방학 제과제빵 강좌를 함께 수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빵 반죽과 오븐 다루는 법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금세 방법을 익혀 한 시간에 식빵 4개 또는 머핀 6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지민이도 열심히 연습했지만, 한 시간에 식빵 4개, 머핀 5개를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4시간 동안 빵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평하게 2시간씩 식빵과 머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는 식빵 8개와 머핀 12개를, 지민이는 식빵 8개와 머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합쳐서 식빵 16개, 머핀 22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활용해, 두 사람이 각자 '더 잘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4시간 내내 머핀을 만들고, 지민이가 4시간 내내 식빵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민수는 머핀 24개, 지민이는 식빵 1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빵 생산량은 동일하지만, 머핀은 2개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전보다 각자 머핀을 하나씩 더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역할 분담만으로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에 더 적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는 머핀, 지민이는 식빵에 각각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우위가 있는 일에 특화하고 서로의 생산물을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은 산출물과 효용을 얻게 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제빵 교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전체, 더 나아가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업 간 협업, 가정 내 역할 분담, 공공서비스와 민간 영역의 연계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 교환하거나 협력한다면 훨씬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우위 원리에 기반해, 세계 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경제 회복을 위해 자유무역 체계를 확대해왔습니다. 1947년 설립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를 통해 국가 간 거래를 촉진했고, 1995년에는 WTO(세계무역기구)로 발전하여 국제 교역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전후 금융안정과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지원하며 무역 기반 조성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국제분업의 원리는 문화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콘텐츠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을 상정하고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더 큰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고, 이는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5000만명의 내수 시장에 머물 때보다 전 세계 수억 명을 상대로 제작할 수 있을 때,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세트에 쓸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시장 개방이 곧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다이소에서 저렴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고급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예전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산물입니다. 한국이 잘 만드는 부품, 독일이 잘 만드는 엔진, 중국이 잘하는 조립 공정이 한데 모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과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시사용어CHECK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줄이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47년에 체결된 국제협정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으로, 1945년에 설립되어 회원국의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 시 자금을 지원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요.

구분	민수	지민
1시간당 생산량	식빵 4개	식빵 4개
	머핀 6개	머핀 5개
식빵 생산의 기회비용	머핀 1.5개	머핀 1.25개
머핀 생산의 기회비용	식빵 0.67개	식빵 0.8개
비교우위 품목	머핀	식빵
4시간 자급자족	식빵 8개	식빵 8개
	머핀 12개	머핀 10개
4시간 분업	머핀 24개	식빵 16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라고 설명합니다. 민수는 머핀을 더 잘 만들지만, 식빵도 지민이만큼 잘 만듭니다. 그러나 민수가 식빵 1개를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머핀은 1.5개입니다. 반면, 지민이는 식빵 1개를 만들면서 머핀 1.25개만 포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민수는 머핀에, 지민이는 식빵

돈의 가치 떨어지자 로마제국도 망했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밑을 만져봤는데, 내가 넣지도 않은 5만원짜리 지폐가 나왔다면 당연히 날아갈 듯 기쁠 거예요. 5만원으로 놀이공원도 가고 맛집 탐방도 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지폐가 왜 가치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5만원짜리 지폐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저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아무도 5만원짜리 지폐를 돈이라고 믿지 않을 테니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하게 되겠죠.

즉 화폐는 사람들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는 수없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화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제국이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제국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인 서기 200년대 초반만 해도 로마제국은 약 45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는데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졌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르만족 침입'이라는 원인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 즉 경제문제였죠.

193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내전을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본래 로마의 정통 황실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귀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의 힘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반란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암살 위협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세베루스는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의 권력 기반인 군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로마 군단병의 급료를 두 배로 올리고 퇴직금도 파격적으로 인상했으며 상비군 규모 역시 기존 30만명에서 45만명 가까이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세베루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제국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해 국경 지역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진압했고 제국의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정치적 안정도 이뤄냈습니다. 그의 치세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력해진 군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데나리온 은화를 사용했는데 제국 내 은광들은 점차 고갈되고 있었고 더 이상 정복 전쟁으로 새로운 자원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며 금, 은, 노예 등 막대한 자원을 확보

했지만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거나 너무 멀어서 오히려 방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지역뿐이었습니다. 은은 점점 부족해지고 자원 유입도 줄어드는데 군대는 커지고 급여는 인상된 상황이었죠.

세베루스는 결국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량을 약 75%에서 50% 정도로 낮춰 더 많은 은화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점차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은화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같은 물건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베루스 치세 때는 아직 은화가 잘 통용됐고 경제도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화폐 정책은 이후 황제들이 더 과감하게 은 함량을 낮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카라칼라는 군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병사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세금을 늘렸지만 그만큼 화폐의 은 함량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로마의 화폐는 점점 값싼 금속 조각으로 전락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돈'이라고 믿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세베루스가 선택한 '돈 찍어내기'는 잠깐의 안정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마 경제 붕괴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3세기 중반 로마는 황제가 수시로 바뀌는 '군인 황제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 황제들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고 심할 때는 은 함량이 5% 미만으로 감소하며 화폐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세금을 은화(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것)가 아닌 곡식이나 물건으로 걷었고 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경제가 무너지자 로마의 상업과 세금 체계도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군대를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강력했던 로마 군단은 예산 부족으로 급여와 장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몰락해 갔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의 수비가 약해지자 게르만족과 훈족이 대거 침입했고, 결국 서기 476년 서로마제국은 게르만족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황제가 쫓겨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미 내부에서부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진 화폐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강력했던 로마제국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로마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게르만족의 칼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돈'이었습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은화.



임하빈 선생님의 돈이 움직인 세계사



시사용어 CHECK

군인 황제 시대

3세기 중반은 로마에서 군대의 지지를 받은 여러 군인 출신 황제들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 교체되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정치적 혼란과 내전이 자주 발생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해외 투자로 돈 벌려면 환율 먼저 알아야 해요



틴매경TEST
공부합시다

최근 몇 년간 자국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미국 주식 투자 붐은 일상이 된 듯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 2023년 1124억3500만주(전년 대비 89.6% 증가), 지난해 1564억1900만주(전년 대비 39.1% 증가)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횡보를 거듭하는 와중에 AI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의 주가가 고공 행진한 탓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주주보호와 주주 환원이 잘돼 있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더해져 자신의 능력이나 경제력을 넘어서 투자하는 소위 ‘무지성 투자’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과연 이러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없을까?’하고 걱정도 됩니다. 아래 <문제>를 통해 해외 투자 시 마주하게 되는 수익과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제>

최근 직장인 K는 급여 이외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 재테크에 열심이다. 국내 주식과 채권은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 금융상품에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매일 주식 시세와 환율 동향, 채권 금리를 체크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는 K의 관심 금융상품 목록이며, 현재 외환 시장에서 100엔은 1000원에, 1달러는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뒤 100엔 가격은 900원, 1달러 가격은 1,470원으로 예상될 때, 이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외환의 매입가격은 매도 가격과 같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별도의 수수료는 일절 없다. 또 회사나 정부 부도에 따른 위험은 없다.)

K의 관심 금융상품 목록 (단위=%)

금융상품	연간 기대수익률	비고
미국 빅테크 A사 주식	5	주가상승률 및 배당수익률
일본 종합상사 B사 주식	10	주가상승률 및 배당수익률
만기 1년 미국 국채	4	만기수익률
만기 1년 한국 C사 회사채	6	만기수익률

<보기>

- ㉠ ‘미국 빅테크 A사 주식’의 기대수익이 ‘만기 1년 미국 국채’보다 크다.
- ㉡ 1년 후 기대수익이 가장 큰 금융상품은 ‘일본 종합상사 B사 주식’이다.
- ㉢ ‘만기 1년 미국 국채’의 기대수익이 ‘만기 1년 한국 C사 회사채’보다 크다.
- ㉣ ‘일본 종합상사 B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 후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우선 각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1년 후 기대수익을 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해외 자산의 경우 주가 상승률과 배당수익률(주식), 만기수익률(채권)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1달러=1400원’이므로 1원을 ‘미국 빅테크 A사 주식’에 투자하면 1년 후 $(1/1400) \times 1.05$ 달러의 수익을 얻고, 이것을 원화로 환전하면 $(1/1400) \times 1.05 \times 1470$ 원, 즉 1.05×1.05 원=1.1025원이 됩니다. 이때 수익률은 약 10%인데, 이 중 5%는 ‘주가상승률 및 배당수익률’이고 나머지 5%는 달러화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원을 ‘만기 1년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 1년 후 기대수익을 구하면 $(1/1400) \times 1.04 \times 1470$ 원, 즉 1.05×1.04 원=1.092원이 됩니다. 이때 수익률은 약 9%인데, 4%는 ‘만기수익률’ 그리고 나머지 5%는 달러화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입니다. 이처럼 달러화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금융상품의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는 미국 금융상품 투자 시 기대수익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일본 금융상품의 경우는 어떨까요? 1원을 ‘일본 종합상사 B사 주식’에 투자할 때 1년 후 0.9×1.1 원=0.99원의 기대수익을 얻고 이때 수익률은 약 0%입니다. ‘주가상승률 및 배당수익률’이 10%임에도 수익률이 0%인 이유는 엔화 가치 10% 하락에 따른 ‘환차손’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원을 ‘만기 1년 한국 C사 회사채’에 투자하면 1년 후 1.06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도위험(default risk)이 없으므로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는 안전한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의 순으로 차례로 나열하면, ‘미국 빅테크 A사 주식 > 만기 1년 미국 국채 > 만기 1년 한국 C사 회사채 > 일본 종합상사 B사 주식’이고, 환위험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A사 주식’의 수익률은 약 10%로 전체 금융상품 중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보기 ㉠은 옳고, ㉡은 옳지 않습니다. 또 ‘만기 1년 미국 국채’ 수익률(약 9%)은 ‘만기 1년 한국 C사 회사채’ 수익률(6%)보다 높으므로 보기 ㉢은 옳습니다. ‘일본 종합상사 B사’의 경우 엔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보기 ㉣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 최봉제 매경아카데미 책임연구원

‘노벨상’ 헤밍웨이도 300번 고쳐 썼대요

지후는 자기가 한 말을 메모해 뒀다가 처음 썼던 글에 반 영했습니다.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글을 완성했다며 보여 주었습니다. 삼촌이 질문 몇 개를 했을 뿐인데 글이 이렇게 바뀌다니, 삼촌 실력을 인정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쓴 글과 비교해 보니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들은 것, 처음에 어려웠던 이유, 무엇이 짜릿했는지, 룰에 빠진 이유, 해주고 싶은 말을 보충하니 글의 분량도 늘었고, 독자의 입장에서 답답함도 해소됐습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교육실천이음연구소 연구위원

〈고쳐 쓴 글〉

룰, 나를 사로잡은 게임

나는 원래 게임에 큰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한 판만 해보자”라고 권했다. 그 게임이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LoL)였다. 챔피언, 스킬, 라인전 모든 말이 낯설었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처음엔 어렵기만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는 게 억울해서 다시 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푹 빠져 있었다.

한 명의 챔피언을 정해서 전장을 누비고, 팀원들과 협력해서 적을 무찌르는 과정이 너무 짜릿했다. 특히, 처음으로 킬을 따냈을 때의 쾌감은 하늘을 나는 듯했다. 더블 킬, 트리플 킬이 나올 때마다 내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룰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룰은 5명이 한 팀이 되어 하는 게임이라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킬은 상대 챔피언을 처치하면 얻는 점수인데, 더블 킬은 연속으로 두 명의 챔피언을, 트리플 킬은 세 명의 챔피언을 연속으로 처치하면 얻는 점수이다.

룰이 처음인 유저라면, 먼저 챔피언 하나를 골라 연습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은 챔피언을 건드리면 실력이 늘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템 빌드와 스킬 콤보를 익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 처음엔 다 힘들지만, 한 판 한 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너도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다. 나처럼 룰의 세계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면, 이제 첫 게임을 시작해 보자!



이상수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지후: 삼촌, 고쳐 쓰기는 왜 하는 거예요?

삼촌: 왜 할까?

지후: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삼촌: 덩동덩! 이젠 척하면 착이네. 전문 작가들은 고쳐 쓰기를 몇 번이나 할까?

지후: 글썬요, 3번 이상 하나요?

삼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쓸 때 300번 이상 고쳐 썼고, ‘무기여 잘 있거라’를 쓸 때는 마지막 쪽만 서른아홉 번이나 고쳐 썼다고 해.

지후: 그만큼이나요? 어휴!

삼촌: 글은 고쳐 쓰는 만큼 좋아지거든.

지후: 삼촌, 고쳐 써야 한다는 건 인정. 그런데 고쳐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삼촌: 맞아, 지후의 질문이 예리한데, 고쳐 쓰는 방법은 차차 배우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서를 써 오면 좋겠어.

지후: 삼촌,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해요? 안 그래도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로 진학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왜 쓰라고 할까요?

삼촌: 학교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

지후: 그야 나처럼 실력 있는 학생을 뽑고 싶겠지.

삼촌: 맞아. 그런데 학교는 지원한 학생의 실력이 어떤지 모르잖아.

지후: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야겠네.

삼촌: 그렇지. 지원자가 실력이 있는지, 그 학교에 적합한 사람 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 왜 지원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말아야. 특히, 기업은 지원자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해.

지후: 삼촌,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알려 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써 오죠.

삼촌: 그래, 대략 알려 줄 테니 한번 써 봐. 우선 지후가 디지털 미디어고에 가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잘 드러나야겠지. 지후가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이어서 진학하게 되면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도 정리해 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보태면 좋겠지. 이루고 싶은 꿈이나 직업을 적어 보고, 그 이유를 2~3줄 정도 써 봐. 그 다음 지후 성격의 장단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봐. 그걸 써 오면 삼촌이랑 고쳐 쓰면서 더 이야기해 보자.

글쓰기 꼭꼭!

1. 자기소개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을 알리는 목적의 글입니다.
 2. 자기소개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지원 동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및 활동, 성격의 장단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입니다.
- ☞ 여러분도 가고 싶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정한 후에 자기소개서를 써 보세요.

도시를 떠나 시골 돌집으로 가실래요?



이병철 시인의
시 소개

돌집에서 사랑하며 살기

눈 아래가 검어졌고 머리카락이 빠졌다
일처리가 능숙해질수록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가?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내가 빠지면 기계가 멈출까?
하는 식상한 질문이 코끝을 울렸다
얻는 것보다 잃어가는 게 확연했고
열정은 조용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어느새 팔 년이 지나 있었다
승용차 들어갈 만큼만 짐을 싣고 섬으로 왔다
책 몇 권, 옷가지 계절마다 서너 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농장의 굴을 따서 팔았다
일당 칠만 원에 당근 양파를 뽑았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지 않았고
하루 내내 음악을 듣고 여행자들과 놀았다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게 재밌니?” 물었지만
웃어넘길 여유는 잃지 않았다
그런 날은 혼자서 무섭기도 했지만
창을 열면 마중 나온 바다가 옆을 지켜 주었다
상추밭과 동백나무가 있는 조그만 돌집을 얻었다
마늘과 양파를 심었고 여전히 굴을 따다
동네 청년들과 해변 쓰레기를 치웠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환경 영화제를 열었다
서울 생활이 생각날 때면
하루 한두 쪽씩 영국 소설을 숙제처럼 번역했다
가끔 글을 썼으며
외로운 여행자의 보루 삼아 책을 엮었다

김유석, '사랑, 사랑, 사랑' 부분(시집 <이주여행자> 천년의시작 2021)

도시화의 핵심 과제는 전근대와의 단절과 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도시는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전통 풍속들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야만적인 문화로 치부하면서 그것들을 멸실시킨 폐허 위에 세워졌지요. 물질적 번영을 속하는 가까운 미래만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시간으로 상정되면서, 오직 ‘미래’를 지향한 산업화 시대는 한국 사회의 욕망 구조를 바벨탑처럼 수직으로 세워놓았어요. 이러한 수직적 욕망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욱 심화되어 계층 간의 간극을 벌리고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아예 없애버렸죠.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낮은 곳에서 더불어 잘사는 대신 높은 곳에서 혼자 잘살기만을 추구하는 ‘상승-단절’이 사람들에게 내면화된 결과예요.

전쟁같은 도시의 삶

위 시의 화자는 ‘전쟁터’로서의 도시를 더욱 자세히 증언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그는 “눈 아래가 검어졌고 머리

카락이 빠졌”어요. 영화 ‘모던타임즈’에 묘사된 것처럼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이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상품주의에 몸과 마음을 다친 것이죠.

“얻는 것보다 잃어가는 게 확연”한 생활 속에서 화자는 마치 더듬이 잘린 곤충처럼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지옥철’에 끼여 출근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건강을 잃어야 하는지, 성공에 대한 강박과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 왜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는 게 왜 즐겁지가 않은지…

제주도로의 자발적 유배

도시에서 보낸 8년 동안의 답답한 삶은 결국 자발적 유배로 이어져 그는 “승용차 들어갈 만큼만 짐을 싣고 섬으로 왔”어요. 도시의 속도와 미친 경쟁과 자본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제주도에 “책 몇 권, 옷가지 계절마다 서너 벌”로 자족하면서 “일당 칠만 원에 당근 양파를 뽑”고 “일하기 싫으면” “하루 내내 음악을 듣고 여행자들과 노”는 삶을 시작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농장의 굴을 따서 파”는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면서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됐어요.

화자는 “상추밭과 동백나무가 있는 조그만 돌집을 얻었”어요. ‘돌집’은 돌로 쌓아 만든 친환경주택이죠. 높이가 낮고 투박한 ‘돌집’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인은 타자와의 교류 가능성을 제거한 채 계층과 등급을 나누어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인들의 ‘높이’ 집착에 경종을 울려요.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거지’라고 부르는 도시 사회의 수직적 욕망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청년에게 보내는 위로와 용기

한편 시인이 살고 있는 ‘돌집’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용함의 유용함’이라는 역설적 진실이죠. 함부로 나뒹굴던 돌들이 틈새를 메꾸며 튼튼한 벽을 이루는 것이 돌집의 건축 원리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요.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앞에서, 수저계급론의 감옥 안에서 도시의 젊은 세대는 사회구조와 기득권을 원망하면서 희망과 의지를 스스로 꺾어요.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시도하지만 투쟁의 대상이 아예 사라진 현실 앞에 학습된 무기력과 자기모멸, 냉소로 치달으며 급기야 목숨마저 내버려요.

시인은 무용해 보이는 돌멩이가 틈새를 찾아 집을 이룬 ‘돌집’을 노래하면서 청년 세대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요.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쓸모에 집착하며 자기존재를 소모하지 말라고,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는 이주도 결코 패배가 아니라고 그가 말할 때, 돌집들이 나란한 제주도는 “동네 청년들과 해변 쓰레기를 치우”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환경 영화제를 여”는 더불어 삶의 아름다운 기점이 되어요.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영리함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어리석음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도시적 욕망이 임계점을 넘어선 시대에 우리는 어리석게 보일 만큼 단조로운 삶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어요. 시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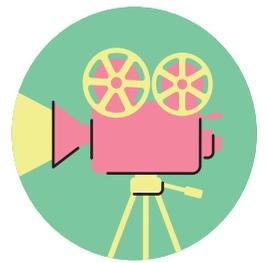
‘이주 여행자’ 시집 표지. yes24 캠퍼

두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의 이야기



뮤지컬 '라흐 헤스트' 프레스콜.

연합뉴스



문화로 만나는 세상
뮤지컬 '라흐 헤스트'

바쁜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극장이라는 열차 속에 앉아 무대라는 터널을 지나고 현실과는 다른 공연 속 세상을 만나봐요. 오늘은 뮤지컬 '라흐 헤스트' 속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사로잡은 뮤지컬

창작 뮤지컬 '라흐 헤스트'가 지난 3월 25일 개막했습니다. 2022년 초연과 2023년 재연의 성공에 이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라흐 헤스트'는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3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에서 빠르게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뉴욕 리딩 쇼케이스 및 콘서트 개최에 이어 일본 라이선스 공연무대에도 올리면서 한국 창작 뮤지컬을 전 세계에 빛내고 있습니다.

동림과 상, 향안과 환기

이야기는 1900년대 살았던 실존 예술가 4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일제강점기 대표 시인 이상, 20세기 대한민국의 대표 화가 김환기, 그리고 작품의 주인공인 수필가이자 미술평론가 변동림과 김향안이 등장해요.

변동림과 김향안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동림은 1930년대에 문학활동을 하던 중 이상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3개월 후 동경(현재의 도쿄)으로 떠난 이상은 불령선인(수상한 조선인)의 이유로 체포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상과의 사별 이후 변동림은 김환기를 만나고 그의 아호인 '향안'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둘은 결혼 후 함께 프랑스, 뉴욕에서 미술 활동을 했고, 김환기의 사망 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국내 최초 사설 미술관인 환기미술관을 설립해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렸어요.

두 시간선과 하나의 인물

뮤지컬 '라흐 헤스트'는 극 전개 방식에서 다른 공연과 큰 차별점을 보입니다. 변동림의 이야기는 1936년 이상을 만난 순간부터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김향안의 경우 생의 끝에 다다른 2024년부터 김환기의 죽음, 첫만남까지

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조를 취합니다.

동일인물이지만 서로 다른 두 시간선을 전개하고 동림과 향안 또한 두 인물로 분리했기 때문에 무대에는 총 네 명의 배우가 등장합니다. 향안(동림)이라는 인물을 모르고 갔다면 서로 다른 시간대임에도 동시에 진행되는 두 연인의 이야기가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림과 향안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따라가다가 두 인물의 시간이 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전까지의 신(scene)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로 이어지는 스토리에 관객은 전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술과 사람, 그리고 사랑

향안은 첫 장면에서 "사람이 가도 남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동림을 만나며 그 해답으로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Les gens partent mais l'art reste)"를 찾게 됩니다. 불어로 '예술은 남다'를 의미하는 '라흐 헤스트'가 이 작품의 이름인 이유예요.

향안(동림)은 두 번의 사별로 크게 슬퍼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김환기가 남긴 예술로 그들을 추억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선택해 나아가요. 관객 또한 이 둘의 강인함과 주체성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고 자기자신을 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뮤지컬 '라흐 헤스트'는 동림과 향안을 그쳐 두 유명 예술가의 아내가 아닌, 본인만의 예술을 빛내고 살아왔던 인물로 표현하고 본인 삶의 주인공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인물의 성장을 통해 관객은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까지 모두 모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의지를 다지게 해줍니다.

하소윤 인턴기자



문화정보 CHECK

1. 공연 기간
2025년 6월 15일까지
2. 극장 장소
서울 종로구 예스24스테이지 1관
3. 티켓 가격
R석 77,000원
S석 55,000원
*할인 정보는 예매처 확인
4. 예매처
예스24 티켓, 인터파크 티켓, 현장 구매

선크림, 귀찮아도 매일 발라야 하는 이유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게티이미지뱅크

벚나무들이 겨우내 품던 구름 같은 연분홍 벚꽃을 드디어 터뜨렸습니다. 봄은 두고만 보기엔 너무 짧아서, 어서 밖으로 나가 뛰놀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운동화를 신기 전 자외선차단제는 발랐는지 확인합니다. 따사로운 봄볕 아래 피부 건강을 망쳐선 안 되니까요.

무기자차vs유기자차 뭐가 다를까?

자외선차단제도 종류가 있어서, 본인에게 적합한 걸 선택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는 성분과 자외선 차단 방식에 따라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뉩니다. 여기서 무기는 무기화합물(탄소 이외 원소로 이뤄진 화합물), 유기는 유기화합물(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뜻하고 자차는 자외선차단제의 줄임말입니다. 그렇다면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무기화합물은 자외선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자극이 적고, 효과도 즉시 나타납니다. 화학 성분이 적게 들어가서 민감한 피부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흡수되지 않는 만큼 뽀뽀하게 발리고, 피부 위에 하얗게 걸도는 ‘백탁현상’도 일어나요.

유기자차는 무기자차와 반대로 유기화합물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피부에 바르면 자외선을 흡수한 뒤 몸에 해롭지 않은 적외선으로 방출합니다. 무기자차보다 발림성이 좋고 백탁현상도 덜합니다. 하지만 화학 작용으로 눈시림, 여드름,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면 무기자차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대신 보습을 충분히 해 부족한 발림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백탁현상이 싫다면 유기자차를 고르되,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에 돌아와 꼼꼼히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SPF·PA 글자의 의미는?

자외선차단제에서 ‘SPF(Sun Protection Factor)’, ‘PA+++ (플러스)’ 같은 글자를 흔히 봤을 거예요. 이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요. 먼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A(UVA), 자외선 B(UVB), 자외선 C(UVC)로 분류되는데, UVC는 대부분 오존층에 차단돼 지표에 닿지 않아

요.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UVA와 UVB입니다.

SPF는 기미, 주근깨 등 흉반을 일으키는 UV-B 차단 지수입니다. SPF 뒤에 붙은 숫자로 나눈 만큼의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즉 ‘SPF 15’라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을 15분의 1로 줄이는 것입니다. PA는 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UVA는 UV-B보다 파장이 길어 덜 유해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듭니다. PA 지수는 PA 뒤에 +를 붙여 나타내며, +가 한 개씩 많아질 때마다 차단력이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 및 실내에서는 SPF 15~30, PA++ 이상의 제품을 두 시간마다 덧바르라고 조언합니다. 야외활동으로 오래 자외선에 노출되면 SPF 30~50, PA+++가 좋습니다. SPF가 50이 넘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에, 무작정 높은 숫자를 찾는 것보다는 자주 덧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남성 기준 900mg, 여성 기준 800mg의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라고 권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입니다.

마스크만 써도 될까?

마스크를 착용하면 자외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도 예외 없이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스크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한 부직포 원단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이중선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유분이 많고 자극이 강한 차단제는 마스크 착용으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순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며 “얼굴뿐 아니라 목, 손, 발 어깨 등 자외선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꼼꼼하게 바르고 챙이 큰 모자, 양산, 열 차단 옷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경헬스 기자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원리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 방출하는 원리

SPF·PA 뒤의 글자는
자외선 차단효과 나타내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4세 고시’

광남중학교 3학년 김수민

요즘 학부모들과 학원가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 초등 입학 전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학원의 입학 시험에는 약 1200명의 아이들이 응시했으며, A4 한 페이지 분량의 긴 지문 여러 개를 읽고 30여 개 문항에 답하는 고난도 형식이었습니다. 아직 놀이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워야 할 시기에, 문제풀이 중심의 선행 교육이 성행하며 사교육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상술에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각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은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한하며, 성적에 대한 집착은 학습의 즐거움을 떨어뜨리고 탐구심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교육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에이미 애드먼슨의 ‘옳은 실패’에서 “실패는 횡수가 아니라 방법이다”라는 문장이 시사하듯, ‘4세 고시’ 현상 속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실패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경험이 가져다준 나의 성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도예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실마다 “차렷, 경례, 인사”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많은 학생이 반장의 역할을 단순히 인사를 주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직접 해보니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반장으로 당선되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학생회 임원으로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계획 수립, 홍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학교가 ‘작은 사회’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배움이 많습니다. 언젠가 사회로 진출할 우리에게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반장이나 학생회 활동과 같은 경험을 쌓으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장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잇는 소통의 다리로, 학생회는 학교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대학교나 기업 실무에서 필요한 협업 능력과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장이나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을 통해서도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도전의 손을 번쩍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기있는 축제에는 이유가 있죠

광남고등학교 2학년 이예은

작년 ‘김천 김밥축제’가 먹거리를 통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화제가 됐는데요. ‘김천 김밥축제’에서는 약 10만명의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축제 중 ‘김천 김밥축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천 김밥축제’는 ‘김천’ 하면 떠오르는 ‘김밥천국’ 이미지를 역발상으로 기획됐으며, SNS를 매개로 MZ세대의 폭발적 관심 속에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김밥이라는 친근한 주제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김밥 만들기 체험, 김밥 빨리 먹기 대회 등)을 마련해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한 발상의 결과, 뽕튀기 그릇을 사용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당 축제는 김천 지자체의 다방면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잘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벚꽃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각 지자체들은 지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아이디어, 먹거리의 조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대전중학교 3학년 김민서

‘교권 추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떨어져 가는 교권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사로 자주 보았던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전중학교 선생님들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도덕 교사인 A 선생님은 교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에게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반면 교권 추락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역사 교사인 B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교권 추락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신뢰’입니다. 선생님을 믿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학생들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더욱 의욕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될 때,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강한 관계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50회

틴매경 TEST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매일경제 아카데미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 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손현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